

레버리지 ETF 반도체 쏠림 경고등... 손실우려 vs 투자기회

반도체 2배 ETF의 명암

서학개미들이 환전 비용과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해외 증시에서나 찾았던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27일 국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반도체주 밸리에 합류하지 못해 'FOMO'(포모·소외공포)를 겪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기대감이 번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변동성과 손실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스피와 코스닥 레버리지 ETF 열풍은 지난해 기록적인 한국 주식 투자 기회를 놓친 개미와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한 투자금을 한국 시장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쏠림 더 커질라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키움·하나·신한·한화 등 자산운용사 8곳은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상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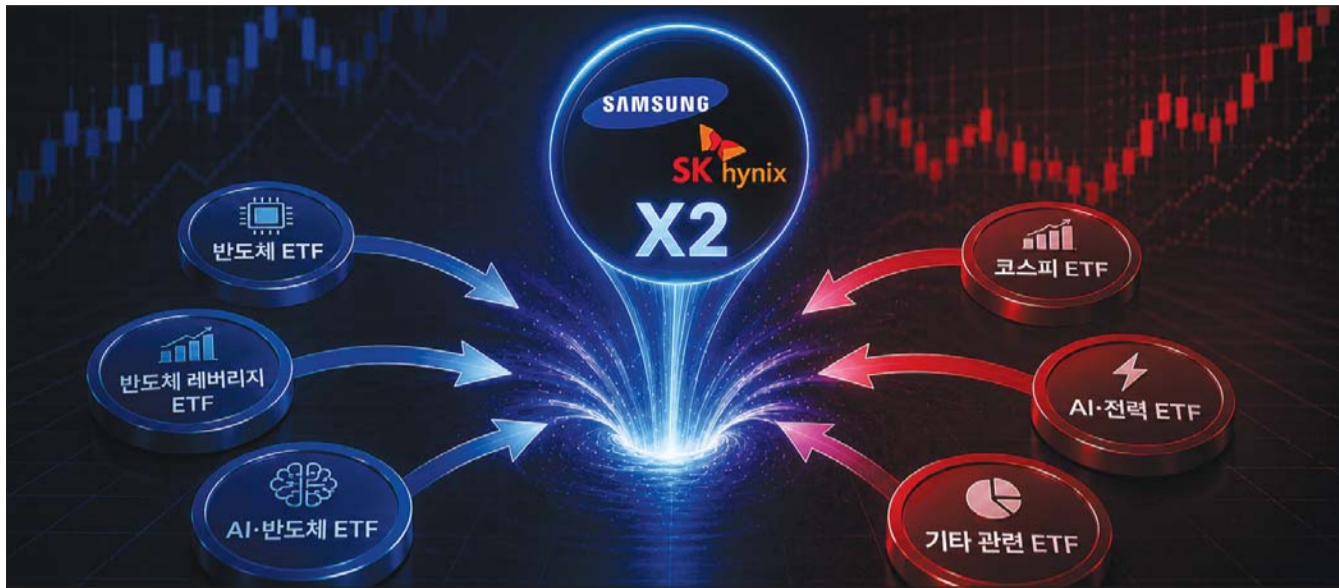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와 하락 시 수익을 추구하는 인버스 ETF로 구성된다. 레버리지 ETN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제공하고 배당 등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ETF·ETN 상장 규모는 총 4조 3227억 원이다.

**내일 삼성·하이닉스 2배상품 상장 규모 4조3227억 달해
개미 관심 속 자금 이동 촉각
반도체 쏠림·변동성 우려 확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10만 89명이 이 상품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신청했고 수료자는 9만 3118명에 달했다.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총 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반도체' 쏠림을 더 확대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 ETF 시장에는 반도체 관련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핵심 편입 종목으로 담고 있는 TIGER 반도체 TOP10 ETF 순자산은 최근 1개월간 3조원 넘게 증가했고, KODEX 반도체 ETF 역시 2조원 이상 늘었다. SOL AI반도체 TOP2플러스 ETF, KODEX AI전력핵심설비 ETF 등 AI·반도체 테마 ETF에도 자금이 몰렸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으로까지 투자 열기가 확산된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진다. 최근 1개월 기준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는 약 7600억원, TIGER 반도체 TOP10 레버리지 ETF에는 약 4200억원이 유입됐다.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ETF 경우는 SK하이닉스(45.8%)와 삼성전자(26.8%) 비중이 70%를 넘는다. 시장에서는 사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세에 베타하는 상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형 ETF 역시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절대적인 탓이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규 자금 유입보다 기존 투자자 자금 이동이 중심이 될 경우 일부 상품 간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자기잡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보다 두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운용사 관계자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기존 반도체 레버리지 ETF"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반도체 업종과 관련 업종이 대다수 올랐지만 6개월 내에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뿐이다. 이어 "반도체 업종 전체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워낙 강해 27일 상장 당일 수급 이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손실 증폭 가능성 경고
빚투·레버리지 과열 차단 주문
환전·세금 부담 낮춘 국내 상품
고수익 기대만큼 손실 확대 우려**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층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인 투자자들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36조 4723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27조 2865억원)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9조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판단과 투자 결과는 투자자의 몫

FT는 "한국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상품에 내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해외에서 충분한 거래 경험이 있고, 사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며 상품 출시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마케팅 활동을 지양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유의 사항'을 통해 해당 상품이 단일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 전 상품 구조와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증폭될 수 있는 고

위험 상품"이라며 "투자자는 자신의 손실 감내 범위 안에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에서 과도한 빚투(빚

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해외 레버리지 ETF로 이동했던 수요 중 일부는 국내 상장 상품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환전 비용과 세금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개인 투자자일수록 국내 상품의 체감 매력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환전과 세금, 접근성이라는 장벽을 낮춘 국내 2배 레버리지 ETF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높은 수익 가능성과 그에 상응하는 손실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상품"면서 "그 위에 올라설지는 투자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허정운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일리있는 선택

든든함도 능력도 1위인 NH투자증권이니까
만기보유 시 원금은 지키고, 수익은 더 기대되는 IMA1이 투자자의 답이 됩니다

IMA1이 투자자의 답이 됩니다

N2, IMA1

든든한 1위
신용등급 1위 AA+
*26.3.18 한국기업평가 기준

능력있는 1위
주식발행 및 인수금융 1위
*25년 대졸리더십, ECM 주관, 인수금융 실적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1위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4년 연속 1위
*25년 KMBC, 증권사 부문

이용고객 1천만 명
*26.3.20 국민은행연계 기준
이월고객 1,043만 명 (총차·당사 고객 제외)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IMA)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IMA)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본 상품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종합금융투자사)에서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시 중도해지 불가)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당사(AA+, 2026.03.18, 한국기업평가)의 신용위험(부도·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A 운용자산>을 당사의 고유자산 등과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자기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상 신탁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됩니다. • 이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및 관리 등에 따른 보수(수수료)가 발생하며, 기타 운용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 및 제26-01370호(2026-03-27 ~ 2027-03-26)